

# “시 쓰기도 하나의 기술...누구나 연습하면 가능”

##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 23일 양림동서 공개 특강

### 장흥 출신 이대흠 시인 ‘시;톡’ 펴내 시적 문장 기초인 직유법 사용부터 시쓰기 망치는 10가지 요인도 수록



시를 쓰고 싶어 하는 문정들이 많다. 문학 담당 기자인 필자는 매주 적잖은 시집을 받는다. 그만큼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작품집을 펴내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시인을 지망하는 이들의 연령대도 다양하다. 칠순-팔순이 넘은 어르신들부터 이십대, 삼십대의 젊은층, 은퇴를 한 실버세대에 이르기까지 시를 쓰고자 하는 이들은 나이와 지위여하를 불문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일할 만한, 독자에게 권할 만한 시집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 창작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익은 생각들을 담아낸 창작집이 부지기수라는 의미이다.

장흥 출신 이대흠 시인이 펴낸 ‘시;톡(북에디션)’은 sns보다 쉬운 시쓰기에 대한 설명서다. 누구나 sns에 자신의 생각을 짧게 올릴 수 있듯이, 시 또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권은 ‘직유법으로 시 쓰기’, ‘시 쓰기를 망치는 열 가지 비법’, ‘시 쓰기 업데이트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인은 항상 두 발로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시인이 꾸미는 말이 신기루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지상의 정원이다. 시인의 정원을 방문한 사람은 거기에 행복감이나 아름다움을 느끼면 된다.”

사실 많은 이들은 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시를 쓰는 데 대한 오해다. 마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일부 문인들만 작품을 쓸 수 있다는 편견이 그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표현 방법을 가지고, 시인들만 알아먹는 암호를 주고받으며 시인들끼리만 노는” 것이 마치 시 쓰기의 본령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시의 정원은 시인의 맘과 눈물과 노동의 결과물이다. 시인은 자신의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흙 문은 손으로 언어의 씨앗을 뿌리고, 언어를 키우고, 언어의 꽃을 피운다”고 말한다.

일정한 훈련과 반복, 노력이 수반되면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책은 쉽고 재미있는 설명과 아울러 저자의 생생한 경험이 덧붙여져 있어 친근하게 다가온다.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연습’의 중요성이



다. 누구나 연습을 충실히 하면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삼짇이나 호미질, 특질이나 폐복질처럼 누구나 연습하면 가능한 것이 시 쓰기이고,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시 쓰기도 하나의 기술이고 가능하다.”

특히 시인이 강조하는 직유법의 중요성은 시 창작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새겨들어야 한다. 직유법

을 잘 활용하면 시 쓰기가 쉬워지고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체성, 묘사, 이미지, 메타포, 상징, 공감각적 표현은 직유법만 잘 활용해도 해결 가능하다.

저자는 ‘단계적인 직유법 훈련’, ‘직유 문장으로 한 편의 시를 완성하기’, ‘좋은 시에는 좋은 직유가 있다’를 통해 직유법은 “시의 문을 여는 만능키”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직유법의 원리를 알면 시의 원리가 보인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시 쓰기를 망치는 습관에 대해서도 말한다. ‘거리조절 실패’, ‘관념적 수식’, ‘가르치는 시’, ‘현학적 표현’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좋은 시를 쓰기 위해 ‘시간을 구체화하는 방법’, ‘은유 놀이’, ‘상징 놀이’ 등의 부분도 담겨 있어 참고할 만하다.

책 곳곳에는 기성 시인들이 놓치거나 혹은 외면할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 아울러 예시문과 첨삭 과정이 실려 있어 시인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손쉽게 다가갈 수 있다.

결국 시를 쓴다는 것은 ‘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어떻게든 결국 언어를 다루는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시 쓰기를 익힌다는 건 계단 오르기와 같다. 그런데 그 계단이 절벽 같다”며 “달팽이가 운뎀으로 길을 뚫듯이 시인은 한 계단 한 계단을 자기 것으로 해야 한다. 바닥에 굳건히 발을 딛지 않는 이에게는 그 계단이 허방”이라고 강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와 함께하는 공개특강이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남구 양림동 10년후그라운드(양촌길 1번지)에서 열린다.



‘골목라이프스타일 : 내일의 키워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에서 모 교수는 ‘뜨는 동네’,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골목의 힘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개특강은 양림동에서 ‘마을이 미술관이다’를 주제로 진행 중인 제1회 양림골목비엔날레 특별강연으로 마련됐다.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모 교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짚는 최고의 멘토다.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그는 전 세계의 매력적인 도시들을 보며 오랫동안 한국의 골목문화를 연구했다. 지금도 전국 골목을 탐방하며 로컬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온라인 사전신청으로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대 국어문화원 국어문화발전 지원 대상 확대

전남대 국어문화원(원장 양영희)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지역민에서부터 다문화 가정 여성과 자녀, 외국인 근로자, 전남대 졸업생과 재학생,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한다. 또 이들이 우리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 가운데 ‘취준생과 함께 하는 국어교실’은 전남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쓰기과 (비)대면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시 운영된다.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어머니와 같은 모교’ 역할을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아름다운 우리말을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우리말 기쁨이’를 선별해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과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유학생과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자녀도 참여시켜 이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유도한다. 특히 바른말 쓰기에 앞장서는 전남대 신문기자들이 ‘우리말 기쁨이’로 참여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래어나 지나치게 어려운 말 등을 순화해 전대신문에 연재하게 된다.

한글날이 있는 한글날 주간에는 광주시와 연계해 지역민뿐 아니라 유학생,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한글 사랑, 한글 알리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들에게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려 그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문화 공동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62-530-031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초연된 창작 뮤지컬 ‘광주’가 지난 13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광주 공연은 오는 5월15~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 5·18 창작 뮤지컬 ‘광주’ 변화된 서사·음악으로 관객 만나다

### 25일까지 서울 LG아트센터 5월 15~16일 광주 빛고을문화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초연된 창작 뮤지컬 ‘광주’가 변화된 서사와 음악으로 다시 관객과 만났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개막공연은 41년 전 5

월의 광주를 직접 만나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로 객석이 가득 찼고, 공연이 끝난 후 이어진 커튼콜에서는 전석 기립과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지난해 초연 이후 광주의 아픈 상처를 민간에 침투한 군인 박한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공감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또 광주 시민들이 다소 가볍게 표현돼 민주주의 정신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는 편의대원 역의 박한수 등 각 등장인물의 서사와 스토리를 보강하고 새로운 뮤지컬 넘버를 더하여 보다 높은 작품성을 갖춘 두 번째 시즌으로 찾아왔다. 고선용 연출은 “지난해 공연 이후 많은 리뷰의 시간을 가지고 음악과 대본을 손질하면서 완성도를 높였고, 배우들도 더 좋은 연기력과 에너지로 갖게 됐다”며 “80년 5월의 아픔을 딛고 일어 서서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하자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공연은 오는 25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광주공연은 오는 5월 15~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총 3회에 걸쳐 선보이며, 광주공연 티켓 예매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된다. 모든 티켓은 인터파크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한편, ‘광주’는 1980년 신군부에 대항해 치열한 민주화투쟁을 벌인 광주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라이브(주) 주관했으며 라이브(주)와 극공작소 마방진이 공동제작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 1644-7990 | cu08171@cu.co.kr

<p>광주본점 266-4150</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 528-4150</p> <p>매곡지점 572-4150</p> <p>첨단지점 576-4150</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동광주지점 264-4150</p>	<p>광주본점</p> <p>양산지점</p> <p>운암지점</p> <p>매곡지점</p> <p>첨단지점</p> <p>운암산지점</p> <p>동광주지점</p>
--	---